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구조화된 자료수집 방법 대신 유아의 반응에 민감하고 개방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사고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연구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역적 논리의 양적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떠한 논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형성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Smilansky(1987)가 고안한 Death Concept Questionnaire 및 Corr와 Balk(2010)의 이론을 참고하여, 유아에게 죽음 하위개념 인식에 대한 일대일 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기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위개념 별로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개념에 대한 완전 획득의 비율이 높은 순서는 비가역성, 비기능성, 예측불가능성, 포괄성, 인과성, 그리고 필연성이었다. 한편, 이러한 6개의 하위개념들이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적 속성을 띄었다면 사후연속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신념적 특성을 지닌다. 죽음 개념에 대한 개방형 추적질문을 통해 나타난 질적 결과는 유아가 죽음 개념을 획득 또는 획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인지발달 단계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학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죽음의 하위개념들은 서로 연관되어 유아의 인지적 조작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특정 하위개념의 획득과 미획득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성과 인과성, 그리고 종국성과 사후연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적 반응이 나타났다.

■ 주제어: 죽음 개념
(Death Concepts)
인지발달
(Cognitive Development)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1)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정교수, 제1저자
2)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slkim@inu.ac.kr)

유아의 죽음 개념화에 대한 인지발달적 분석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양 성 은¹⁾ 김 상 림²⁾
Sungeun Yang Sang Lim Kim

I. 서론

죽음에 관한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금기였다. 하지만, 웰빙(well-being)이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인간이 죽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실존적 문제이며, 이를 직시하는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죽음의 담론화 과정에서 아직까지 유아기는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아도 자신을 둘러싼 생태학적 체계 내에서 죽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존재이다. TV, 게임, 애니메이션, 그림책 속 등장인물의 죽음, 재배하던 꽃이나 나무의 고사, 애완동물의 죽음, 교사나 친구의 죽음, 조부모, 친인척, 심지어 부모나 형제자매의 죽음, 또는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 등 다양한 죽음의 가능성이 유아기부터 존재한다. 또한, 이미 초기 유아기부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는 발달심리학적 결과도 있다(Corr, 2010, p. 23). 유아가 죽음에 무지하다는 오해로 인해 성인들은 왜곡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오히려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이나 과장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서현아, 1998; Grollman, 1990; Lonetto & Templer, 1986).

1. 죽음의 인지적 개념화

선행연구들은 죽음이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개념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죽음 개념의 대표적 이론가인 Speece와 Brent(1984, 1992, 1996)는 1970년대부터 발표된 아동 대상의 논문들을 고찰한 후, 연구자들이 주로 보편성(universality), 비가역성(irreversibility), 비기능성(nonfunctionality), 인과성(causality)의 4가지 하위개념을 중심으로 죽음 개념을 측정해왔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변인들로는 연령,

인지 발달 수준, 실제 죽음 및 사별 경험, 죽음 불안 수준 등이 함께 분석되었다.

이후, Corr와 Balk(2010)는 보다 구체적인 하위변인들을 체계화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죽음의 하위개념으로 종국성(finality), 보편성(universality), 인과성(causality), 그리고 사후연속성(noncorporeal continuation)을 제시했다. 첫 번째 하위개념인 종국성은 비기능성(nonfunctionality)과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기능성은 사망한 후에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던 모든 생물학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이 중단된다는 개념이다. 비가역성은 일단 사망하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전조작기 유아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비가역성이 불완전하며, 사망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혼란을 느낀다. 단, 선행연구들은 비가역성 개념이 사후세계나 영혼 불멸 등의 믿음과 혼재되어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 하위개념인 보편성은 다시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포괄성(all-inclusiveness), 필연성(inevitability)으로 세분화된다. 예측불가능성은 모든 생물이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사망 시점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이다. 포괄성은 어떤 대상이 죽게 되는가에 관한 개념으로서, 모든 생물이 죽음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획득된다. 필연성은 포괄성보다 더 진전된 개념으로서, 모든 생물은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필연성을 먼저 획득하며, 이후 자신의 죽음도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 번째 하위개념인 인과성은 죽음이 왜 일어났고 무엇이 죽음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인과성을 획득한 유아는 죽음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예: 전쟁, 교통사고 등) 보다는 내부적 요인(예: 고령, 질병 등)에서 찾게 된다.

마지막 하위개념인 사후연속성은 육체가 소멸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삶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사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믿는 유아는 천국과 같은 사후세계, 영혼의 승천, 환생, 부활 등을 표현한다. 사후연속성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구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Moore & Moore, 2010). 특히 사후연속성은 유아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학습되는 내

용이나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죽음 개념의 발달적 획득

유아의 죽음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는 서구에서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선구적 학자인 Maria Nagy(1948, 1959)는 세계2차 대전 직전에 헝가리 아동을 대상으로 죽음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Nagy(1948, 1959)에 따르면, 만5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유아는 죽음의 비가역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 점차 죽음의 보편성을 획득한다. Nagy(1948, 1959)의 결과는 이후 학자들의 검증을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Speece와 Brent(1996)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 Nagy(1948, 1959)의 분류보다 더 빨리 유아가 죽음 개념을 획득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Speece와 Brent(1996)에 따르면, 약 만3세에 초보적인 수준의 죽음 이해가 시작되며 이후 만5~7세 사이에 죽음의 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개념을 획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과성은 더 후반에 획득되는데, 이는 생물학적 지식과 추상적 지식이 결합되어야 인과론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유아는 죽음이 슬픔을 동반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죽음이 타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과의 이별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 유아는 죽음을 타인의 죽음으로만 생각하여 죽음과 사별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연구들(Corr, 2010; Moore & Moore, 2010)도 Nagy(1948, 1959)의 분류보다 더 빠른 시기에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습득하고, 사별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Corr(2010)는 실제 사별을 경험한 유아들을 연구하면서 Nagy(1948, 1959)의 주장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별을 겪은 만3세 미만의 영유아는 죽음을 인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위의 반응을 지각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이후 만3~5세 유아는 아직까지 죽음을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만6~8세 아동은 본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만 죽음의 비가역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aget 학파와 달리 Vygotsky의 사회구성주의에 입

각한 학자들은 특정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Richardson, 1993). 이는 지식의 구성이 사회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Vygotsky(1978)의 고전 이론에 근거한다. 구체적 연구의 예로서, Hunter와 Smith(2008)는 죽음, 폭력, 전쟁 등의 이미지를 내보내는 대중매체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환경 속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죽음을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특성이 아동의 죽음 및 사별 개념의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죽음 개념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서구 학계의 관심과 달리 국내의 연구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고 부족하다. 국내에서 아동의 죽음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시작되었으나(권성자, 1984; 김남주, 1984; 김상희, 1986; 이정희, 1988; 정경숙, 1985), 1990년대를 거치면서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다가(김양남, 1993; 서현아, 1998; 정경숙, 2000; 정은미, 1999),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죽음교육과 관련된 연구(양진희, 2006; 양진희, 2007; 이찬숙, 조메리명희, 2009)가 일부 행해진 후 정체된 상태이다.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제한적이거나 또는 왜곡된 지식을 형성한 경우,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의 사망은 정서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유아가 자신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게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된 막연한 불안, 공포, 환상을 감소시키는데도 필요하며(Slaughter & Griffiths, 2007), 사별을 겪을 때도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적응력을 높인다(양진희, 2006; 이정희, 2007).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아가 죽음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연구방법 측면에서 유아의 죽음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단답형 유도질문을 통해 죽음 개념 획득 여부만을 단순화하여 측정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죽음에 대한 개념은 인지적 발달 수준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수반하며, 유아가 속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변형되어 학습되는 통합적 경험이다(Wass & Towry, 1980).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며, 구조화된 자료수집 방법 대신 개방적인 질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사고과정을 이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orr & Balk, 2010, p. xxiv).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연구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역적 논리의 양적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떠한 논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형성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귀납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연구방법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연령의 유아가 죽음의 하위개념을 인지적으로 획득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형적인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해왔다. 즉, 엄격히 구조화된 질문들을 유아에게 던지고 단답형 답변을 유도한 후 통계분석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유아에게 최소한의 반응시간을 주고 일련의 질문에 대한 “예, 아니요”의 답변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죽음과 같은 복합적인 현상을 유아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유아가 자신의 발달 수준에서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연관 짓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요원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죽음을 이해하는 인지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탐색적 접근을 통한 이해(verstehen)가 우선되어야 할 때 유용하며, 협소하게 조작된 변수들 간의 인과적 설명 대신 “발견”을 지향하는 귀납적 논리를 따른다(Padgett, 1998). 특히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연구참여자의 관점을 경청하려는 시도를 통해 왜 특정 현상이 특정 방식으로 지각되고 경험되는가를 탐색하려고 노력한다. 기존의 죽음 관련 자료수집이 성인 연구자의 편의로 계획되고, 유아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 개념에 대한 심층면접을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적 독창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죽음의 주

요 하위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는 후기 유아기(만 5~6세 유아)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Speece와 Brent(1996)에 따르면, 만3세경부터 초보적인 수준의 죽음 이해가 시작되며, 만5~7세 사이에 죽음의 보편성, 비가역성, 비가능성 개념이 획득되고, 이후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늦게 획득된다. 본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만5~6세 유아는 죽음 하위개념의 일부는 획득하고 일부는 미획득 상태인 과도기이다. 전조작기에 있는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로 죽음을 이해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지 질적으로 탐색하기에 적합한 연령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유아가 실제로 겪은 죽음 관련 또는 사별 경험이 연구결과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제외하고 양부모가족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수도권 소재의 어린이집 3개소에서 양부모가족의 유아 52명(여 37명, 남 15명, 평균 만5.3세)이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사전에 해당 연구의 목적, 절차, 주제의 민감성 등에 관한 설명서를 유아의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배포하고,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유아에게는 자료수집 직전에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였다.

2. 자료수집

유아 스스로 죽음에 대해 생각할 있도록 여유를 주고, 인지적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 자료수집법을 강조한 Corr와 Balk(2010)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별로 1회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고, 각 면접의 소요시간은 약 30-40이었다. 면접을 위한 질문들은 사전에 아동발달 전문가 및 보육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요청하여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의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유아에게 적합한 용어로 확인한 후, 도입 질문을 통해 인지적 활성화를 시작하였다. 다음에는 Smilansky(1987)가 고안한 Death Concept Questionnaire 및 Corr와 Balk(2010)의 이론을 참고

하여, 죽음 하위개념 인식에 대한 구조화 질문을 실시하였다. 각 구조화 질문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개방형 추적질문을 하여 유아가 죽음 하위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탐색하였다. 끝으로, 유아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한 후 감사 인사와 함께 면접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죽음에 대한 유아의 인지적 이해에 국한되며, 실제 정서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료수집 시 유아가 낯선 성인 면접자에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수집 시 유아가 안심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섭외기관을 미리 방문하여 약 일주일간의 참여관찰을 실시하면서 유아들과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실제 면접을 실시할 때, 연구자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에서 감정을 과장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유아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자료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유아가 죽음 하위개념을 인지적으로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죽음 하위개념인 종국성, 보편성, 인과성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유아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획득 또는 미획득”으로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이다(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네. 다시 살아나요.”→ 비가역성 미획득). 그러나 유아의 짧은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추적질문을 하면 단순히 “획득 또는 미획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반응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에 “불완전 획득(예: “사람들은 다 죽지만 엄마, 아빠까지 죽지는 않아요”→ 포괄성 불완전 획득)”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유아의 반응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이에, 종국성, 보편성, 인과성에 대한 획득, 미획득, 불완전 획득 여부를 빈도와 퍼센트로 제시하였다.

한편, 사후연속성 개념은 Smilansky(1987)의 척도에는 없으나 이후 Corr와 Balk(2010) 같은 학자들이 유아가 죽음에 대해 갖는 근본적인 의문이 사후연속성(예: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임을 주장하면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사후연속성에 대한 유아의 믿음 여부를 양적으로 산출한 후 사후연속성의 내용

이 무엇인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은 특정 죽음 하위개념의 획득 여부라기보다는 개방형 추적질문을 통해 유아의 인지적 논리가 무엇이기에 그러한 대답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반응을 특정 죽음 하위개념의 획득 여부(획득, 미획득, 불완전 획득) 또는 믿음 여

부(믿음, 믿지 않음, 모름)로 범주화한 후 어떠한 논리로 유아가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고, 그러한 사고과정의 인지발달적 특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죽음 하위개념이 서로 관련되고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수집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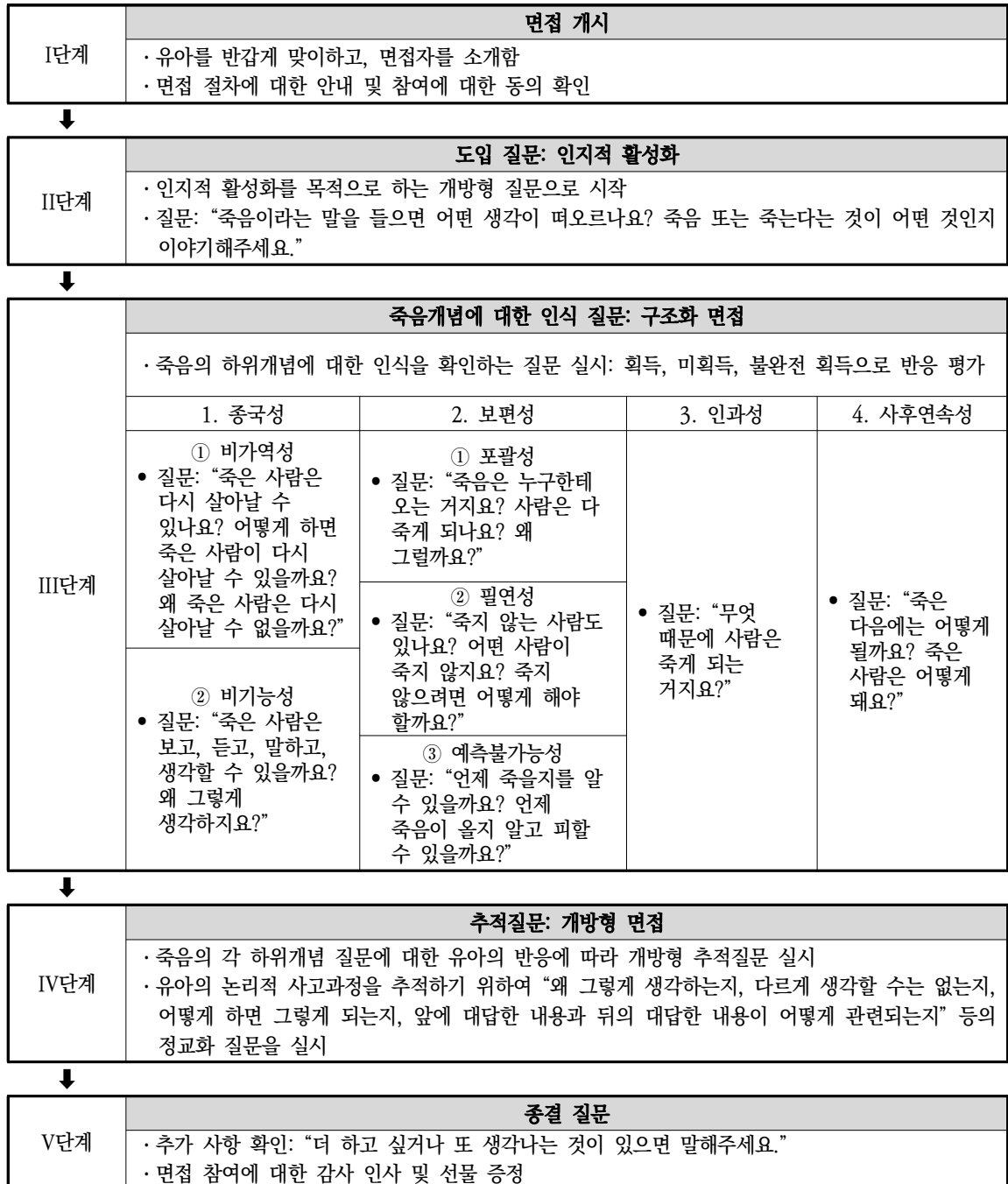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의 죽음 개념화에 대한 심층면접 프로토콜

부터 수시로 동료전문가들로부터 자문(peer debriefing)을 받아 연구자들의 오류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아동발달심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죽음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해 유아와 면접하는 과정의 유의점에 대해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료분석시 유아의 개방적 반응을 각 죽음 하위개념 별로 범주화한 초기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반증사례분석(analysis of disconfirming observations)을 실시하였다. 이는 잠정적 이론모델이 성립된 후 여기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예외적 사례에 주목하여 이론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적 연계를 보완하는 질적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죽음 하위개념 이해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를 잠정적으로 도출한 후, 이에 의거하여 역(逆)으로 전체 유아의 반응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초기 분석결과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예외사례를 발견하고, 이러한 예외사례들이 갖는 독특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전체 질적 결과의 정교화를 높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유아의 죽음 개념 획득에 대한 양적 결과를 제시하고, 질적 결과를 통해 유아가 인식하는 죽음의 각 하위개념을 고찰하였다. 특히 유아가 어떠한 인지 과정을 통해 죽음 하위개념들을 연관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유아의 죽음 개념 획득

먼저, 죽음 개념에 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유아가 죽음 하위개념을 얼마나 획득하고 있는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유아들은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위개념 별로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개념에 대한 완전 획득의 비율이 높은 순서는 비가역성(34.6%), 비가능성(30.8%), 예측불가능성(13.5%), 포괄성(11.5%), 인과성(7.7%), 그리고 필연성(3.8%)이었다. 다수의 유아들이 획득과 미획득 사이에 놓인 불완전 획득 상태인 점을 감안하고, 미획득 비율이 높은 순서는

필연성(82.7%), 포괄성(80.8%), 예측불가능성(71.2%), 비가능성(53.8%), 비가역성(40.4%), 인과성(15.4%)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유아의 죽음 하위개념에 대한 인지적 이해 수준(N = 52) 단위: 명(%)

| 죽음 하위개념 | 구분 | 사례수(비율) |
|---------|-----------------------|-----------|
| 포괄성 | 획득 | 6 (11.5) |
| | 미획득 | 42 (80.8) |
| | 불완전 획득 | 4 (7.7) |
| | 합계 | 52(100.0) |
| 보편성 | 획득 | 2 (3.8) |
| | 미획득 | 43 (82.7) |
| | 불완전 획득 | 7 (13.5) |
| | 합계 | 52(100.0) |
| 예측 불가능성 | 획득 | 7 (13.5) |
| | 미획득 | 37 (71.2) |
| | 불완전 획득 | 8 (15.4) |
| | 합계 | 52(100.0) |
| 인과성 | 획득(내적 및 외적 원인) | 4 (7.7) |
| | 미획득 | 8 (15.4) |
| | 불완전 획득 (외적 원인만 언급) | 30 (57.7) |
| | 불완전 획득 (내적 원인만 언급) | 10 (19.2) |
| 비가역성 | 합계 | 52(100.0) |
| | 획득 | 18 (34.6) |
| | 미획득 | 21 (40.4) |
| | 불완전 획득 | 13 (25.0) |
| 종국성 | 합계 | 52(100.0) |
| | 획득 | 16 (30.8) |
| | 미획득 | 28 (53.8) |
| | 불완전 획득 | 8 (15.4) |
| 비가능성 | 합계 | 52(100.0) |
| | 믿음 | 34 (65.4) |
| | 믿지 않음 | 5 (9.6) |
| | 모름 | 13 (25.0) |
| 사후 연속성 | 합계 | 52(100.0) |

이를 비교하면, 연구참여자 유아들에게 있어 필연성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지며, 포괄성 역시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았다. 인과성은 완전 획득의 비율과 미획득의 비율이 모두 낮고, 대부분의

응답(76.9%)이 불완전 획득으로 나타났다. 인과성을 완전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내적 및 외적 원인을 모두 알아야하는데, 다수의 유아는 내적 또는 외적 원인 중 어느 한쪽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완전 획득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죽음의 비가역성 및 비가능성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는 다른 개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후연속성을 믿는 유아는 65.4%였으며, 믿지 않는 유아는 9.6%,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응답이 25.0%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만 5.3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표 1의 결과는 이 시기 인지발달 단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아의 죽음 이해에 대한 질적 분석

본 연구의 초점은 죽음 개념의 획득 여부를 단순히 빈도화 하는 것이 아니며, 각 하위개념에 대한 유아의 이해 반응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죽음 하위개념 인식에 대한 구조화 질문을 실시한 후 개방형 추적질문을 통해 유아가 죽음을 어떤 논리적 근거로 개념화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목할 결과는 유아가 죽음 개념을 획득 또는 획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유아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인지발달 단계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죽음의 하위개념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면서 인지적 조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성과 인과성, 그리고 종교성과 사후연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적 반응이 나타났다. 각 하위개념에 따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아의 획득 또는 미획득 또는 불완전 획득의 반응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1) 보편성과 인과성

(1) 보편성

보편성은 포괄성, 필연성, 예측불가능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보편성의 첫 번째 하위개념인 포괄성은 어떤 대상이 죽게 되는가에 관한 이해를 뜻하며, 모든 생물이 죽음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획득된다. 포괄성을 불완전하게 획득한 유아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모와 같은 친밀한 대상이 사망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주요 타자와의 사별로 인한 고통을 의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원을 일반적인 사람으로 포함시키는 인지적 범주화가 미숙하기 때문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유아도 언급하지 않았다.

#15 보편성: 불완전 획득

면접자: 사람들은 다 죽게 되니?

참여아동: 다 죽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까지 다 죽지는 않아요.

면접자: 엄마, 아빠는 안 죽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엄마, 아빠는 왜 죽었을까요?

참여아동: 모르겠어요.

면접자: 엄마, 아빠가 안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아동: 저희가 말을 잘 들으면요.

보편성의 두 번째 하위개념인 필연성은 포괄성보다 더 진전된 개념으로서 모든 생물은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개념이다. 필연성은 연구참여 유아들의 이해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추상적이고 난해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유아들의 전형적 반응은 건강한 습관, 안전, 종교, 선행 등의 노력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필연성이 미획득된 상태를 나타냈다. 또는 죽음을 사자(死者)로 의인화하면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 필연성: 미획득

면접자: 죽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아동: 죽지 않으려면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요,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해요. 물, 야채, 고기랑 밥 이런 거 잘 먹어야 돼. 콩이랑.

#52 필연성: 미획득

면접자: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는 있어요?

참여아동: 도망치면, 거기 개 옆에 썩 도망치면 되요. 그리고 잡히지 않게 엄청 빨리 걸어야 되요.

보편성의 세 번째 하위개념인 예측불가능성은 모든 생물은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사망 시점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때 획득된다. 예측불가능성은 다수의 유아들이 미획득(71.2%)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완전 획득(15.4%)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화가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한 유아들은 “나이가 들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죽음은 예측불가능하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러한 유아의 대답은 틀린 것이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유아를 미획득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성인 연구자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불완전 획득으로 인정하였다. 어떤 특정 시점에 죽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예측불가능성 개념이지만 장기적 시간 조망 관점에서 유아의 사고과정이 갖는 독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14 예측불가능성: 불완전 획득

면접자: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죽는데?

참여아동: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또 100년이 되면 갑자기 죽을 것 같아요.

(2) 인과성

인과성의 획득은 죽음이 왜 일어났고, 무엇이 죽음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아는 것이다. 인과성을 완전히 획득한 경우, 유아는 죽음이 외부적 요인(예: 흉기 사용을 통한 범행, 전쟁, 교통사고 등)과 내부적 요인(예: 고령, 질병 등) 모두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죽음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만 찾거나(57.7%) 또는 내적 요인에서만 찾는 경우(19.2%)는 불완전 획득 상태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인지발달 특성상 죽음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다가 점차 내부 원인도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21 인과성: 획득

면접자: 무엇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거지요?

참여아동: 칼 때문에. 찌르면 죽잖아요. 그리고 화살.

면접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참여아동: 있어요. 병이면 [죽어요]. 병원 가서 치료 받았는데, 안 되면 그냥 묻고 돌아가시는 거죠.

한편, 인과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쁜 사람, 못된 짓”이 죽음의 원인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에 Freud의 남근기(phallic stage)를 거치면서 양심 또는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유아는 죽음을 일종의 처벌로 간주하여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죽음이 초래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39 인과성: 미획득

면접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참여아동: 못된 짓 많이 하거나 그러면 나쁜 사람이 죽는 거예요.

(3) 보편성과 인과성의 관계

개방형 면접을 실시해 얻은 질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가 보편성과 인과성을 나름의 논리로 연결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을 보면, 유아의 인과성에 대한 이해가 보편성의 하위개념인 포괄성과 필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난다.

#30 포괄성, 필연성, 인과성의 논리적 연계

면접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어요(인과성)?

참여아동: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면접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건가요(포괄성)?

참여아동: 병에 걸리면 죽죠.

면접자: 어떤 사람들이 안 죽어요?

참여아동: 병에 안 걸리거나, 칼에 안 찔리거나, 총에 안 맞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면접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죽는데요?

참여아동: 병에 걸리거나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는 사람들.

면접자: 언제 죽음이 올지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나 죽기 싫어”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있어요(필연성)?

참여아동: 병에 안 걸리고 또 약 먹고 칼에 안 찔리면 되요.

위 인용문에 따르면, 해당 유아(#30)는 죽음의 원인으로 외적 요인(칼, 총)과 내적 요인(질병)을 이해함으로써 인과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특정인에게 그러한 죽음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러한 원인을 의도적으로 피하는데 성공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사고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유아는 포괄성과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죽음의 외적 원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내적 원인(노화, 질병 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유아가 이해하는 데는 성숙과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유아의 “예, 아니요” 반응만을 보고 포괄성이나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 “특정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알고, 이러한 원인을 피하면 그 현상도 피할 수 있다”는 유아의 논리적 귀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종국성과 사후연속성

(1) 종국성

종국성은 비가역성과 비가능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종국성의 하위개념인 비가역성은 일단 사망하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죽음의 비가역성을 아직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한 유아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개념을 인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료적 조치(병원 치료, 수술 등)와 같은 인위적 노력으로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는 혼란된 반응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유아들은 전조작기 후반에 있으면서 인지적으로 가역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들이 죽음의 비가역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역적 사고를 하는 동시에 죽음이 비가역적 현상이라는 특수성을 깨달아야 한다.

#14 종국성: 불완전 획득

면접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나요?

참여자아동: 아니요. 못 살아나요. 대신 수술을 하면 살아 날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수술을 하면 다 나아요. 약도 먹고요.

종국성의 하위개념인 비가능성은 죽으면 모든 생물학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기능이 중단된다는 개념이

다. 한편,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속한 전조작기의 사고 특성 중 하나는 물활론(animism)이다. 물활론적 사고를 하는 유아는 사물도 생명, 인지, 정서가 있다고 믿으며,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데 특히 움직임 여부가 중요하다. 물활론적 사고기의 유아는 죽음의 비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체가 죽으면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가능성인데, 모든 사물이 생명이 있다고 믿는 물활론적 사고와 부딪치면서 유아가 인지적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2 비가능성: 획득

면접자: 죽은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참여자아동: 아니요. 죽은 사람은 생각을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어요].

(2) 사후연속성

사후연속성은 육체가 소멸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삶이 지속되는가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사후연속성은 인지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학습에 따른 신념체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학계의 과학적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진한 개념이다. 아래 인용문은 질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후연속성에 대한 유아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25 사후연속성: 믿음

면접자: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참여자아동: 몸은 장례식장에 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감옥에 갇힐지 행복하게 살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사후연속성을 믿는 연구참여자 유아가 다수(65.4%)로 나타났으며, 믿지 않는 유아는 소수(9.6%)이고, 나머지(25.0%)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응답한 점이다. 질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후연속성을 믿는 유아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며, 천국과 같은 사후세계, 영혼의 승천, 부활, 또는 환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천사, 유령, 하느님(나)님과 같은 절대자의 존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

육과 같은 부정적 장소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유아는 유토피아로서의 사후세계를 묘사했다. 연구참여 자 유아들의 반응은 유아용 콘텐츠(그림책,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의 내용, 주위 성인들의 죽음이나 사별과 관련된 일상적 대화, 유아의 죽음 질문에 대해 성인이 모호하게 대답한 것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유아들의 반응이 부모의 특정 종교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3) 중국성과 사후연속성과의 관계

개방형 면접을 실시해 얻은 질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유아가 중국성과 사후연속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지어 사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후연속성 중 윤회를 믿는 유아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다는 반응을 함으로써 비가역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승천이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유아는 죽은 자가 공간적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비가역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27 비가역성 미획득과 사후연속성(윤회)

면접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날 수 있나?

참여아동: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33 비가역성 획득과 사후연속성(하늘나라)

면접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날 수 없을까?

참여아동: 없어요. 천사되니까. 천사가 되어서 하늘 나라에서 올라가서 살아요.

또한, 사후연속성을 믿는 유아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늙는 등의 기능을 한다고 대답함으로써 비가능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후연속성에 대한 유아의 믿음을 인정한다면 이는 지극히 논리적인 답변인 것이다. 본 해석의 초점은 유아의 사후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죽음의 다른 하위개념 획득에 독특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성인의 관점에서 이를 인지적 미성숙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28 비가능성 및 비가역성 미획득과 사후연속성

면접자: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지?

참여아동: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이랑요. 늙고요. 밥 먹고요, 그쪽 놀이터에서 막 놀아요.

IV. 논의 및 결론

우리 사회의 죽음 담론화 과정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유아가 인식하는 죽음 개념을 탐색하는 것은 유아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죽음의 하위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어떠한 논리적 사고과정을 통해 형성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죽음 개념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아직까지 죽음 하위개념을 획득하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죽음 하위개념 간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죽음 개념에 대한 개방형 면접을 통해 나타난 질적 결과는 유아가 죽음 개념을 획득 또는 획득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인지 발달 단계의 특성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학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하위개념들은 서로 연관되어 유아의 인지적 조작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하위개념의 획득과 미획득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하위개념들 중에 보편성과 인과성, 그리고 중국성과 사후연속성이 논리적으로 연계되는 전형적 반응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들에게 있어 죽음의 보편성은 아직까지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진다. 이는 선행연구(Corr & Balk, 2010)와 유사한 결과로서 “알 수 없는 시점에서(예측불가능성) 모든 생명체는(포괄성) 반드시(필연성) 죽는다.”는 명제를 만5세 전후의 유아가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친밀한 가족구성원의 죽음을 인정해야하는 포괄성은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대처가 요구되는 개념으로서 획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유아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죽게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기까지는 발달적 성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편성의 또 다른 하위개념인 예측불가능성과 필연성은 인과성과 연관되어 후기 유아기 사고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연구참여자 유아들의 다수가 인과성을 완전히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내적 및 외적 원인 중 하나를 이해하는 비율은 높았다. 죽음의 내적 원인인 노화를 이해한 유아들은 “늙으면 죽게 된다.”는 논리 하에 죽음이 예측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죽음이 사고나 범죄 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유아들은 이를 피하고자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반응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두 죽음의 예측불가능성이나 필연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아 나름의 논리성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죽음의 종국성을 다른 개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종국성의 하위개념인 비가능성이 구현된 실체, 즉 눈을 감고 쓰러져 있거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신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목격한다. 다른 추상적인 개념에 비해 비가능성은 대중매체 콘텐츠 속의 구체적 죽음 묘사 방식으로 시각화가 용이한데, 이러한 점이 유아의 개념화를 돕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Hunter & Smith, 2008). 종국성의 또 다른 하위개념인 비가역성에 대해서도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이해도는 높게 나타났다. 전조작기 후반에 속한 유아는 가역적 사고가 점차 가능해지는데(정경숙, 2000), 본 결과는 이 시기 유아가 죽음이 지닌 특수한 비가역성을 깨닫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의 보편성, 인과성, 종국성이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적 속성을 띄었다면, 사후연속성은 이와 구별되게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신념적 속성을 지닌다(정은미, 1999). 본 연구에서 사후연속성은 종국성의 하위개념인 비가능성 및 비가역성과 흥미로운 논리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사후연속성에 대한 신념을 지닌 유아는 죽은 자가 특정 시공간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고 믿는다. 이는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가역성에는 부합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가능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한편, 사후연속성으로 윤회를 믿는 유아는 죽음의 비가역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유아가 믿는 사후연속성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지

적 기능의 평가가 좌우되는 것은 이전의 양적 측정방법이 포착하지 못한 문제점이며, 본 질적 연구가 새롭게 조명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모가 종교를 가졌는지를 변수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신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참여자 유아들이 특정 종교의 구체화된 사후세계가 아닌 모호하고 희망적인 유토 피아에 대한 신념을 드러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불교, 도교, 토속신앙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유아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단일한 메시지를 학습시키는 대신 다양성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성인이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을 유아에게 전달할 때 판타지적 희망이나 또는 반대로 절대자의 처벌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iaget의 전통적 인지발달 이론뿐 아니라 사회구성주의 관점에도 주목하여 유아가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지발달 수준이 죽음의 하위개념 획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특히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서 사후연속성과 같은 사회구성적 개념이 비가역성이나 비가능성과 같은 인지적 조작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제시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후 보다 정교한 죽음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아에게 구조화된 질문을 주고 단답형 답변을 유도한 후 피상적 통계분석에 의존하던 기존의 양적방법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개방형 면접법을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방법론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자(1984).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남주(1984). 아동의 죽음 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희(1986).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도 및 부모와 교사의

- 의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남(1993). 아동의 죽음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사람, 동물, 식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아(1998). 연령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9(1), 97-118.
- 양진희(2006).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7(3), 1-27.
- 양진희(2007).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개념 교육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9-74.
- 이정희(1988). 아동의 죽음개념형성 및 그 증재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7). 아동의 죽음개념 발달과 죽음대비교육. **목포과대학학논문집**, 31, 341-368.
- 이찬숙, 조메리명희(2009).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이 유아의 죽음개념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3(3), 417-437.
- 정경숙(1985).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지적 발달과의 관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숙(2000).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수준과 죽음에 대한 정서 경험수준이 죽음의 개념발달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미(1999). 종교와 죽음경험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 개념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rr, C. A. (2010). Children's emerg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s of loss and death. In C. A. Corr & D. Balk (Eds). *Children's encounters with death, bereavement, and coping* (pp. 21-37).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Corr, C. A., & Balk, D. (Eds.). (2010). *Children's encounters with death, bereavement,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Grollman, E. A. (1990). *Talking about death: A dialogue between parent and child*. MA: Beacon Press.
- Hunter, S. B., & Smith, D. E. (2008). Predictors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Age, cognitive ability, experience and maternal communicative competence.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57(2), 143-162.
- Lonetto, R., & Templer, D. I. (1986). *Death anxiety*. DC: Hemisphere.
- Moore, J., & Moore, C. (2010). Talking to children about death-related issues. In C. Corr & D. Balk (Eds). *Children's encounters with death, bereavement, and coping* (pp. 277-291).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Nagy, M. (1948). The child's theories concerning death. *The Pedagogical Seminary an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73(1), 3-27.
- Nagy, M. (1959). The child's view of death. In H. Feifel (Ed). *The meaning of death* (pp. 79-98). NY: McGraw Hill.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CA: Sage.
- Richardson, F. J. (1993). *Death education: A comparison of two program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alifornia.
- Slaughter, V., & Griffiths, M. (2007). Death understanding and fear of death in young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4), 525-535.
- Smilansky, S. (1987). *On death: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cope*. NY: Peter Lang Publishing, Inc.
- Speece, M. W., & Brent, S. B.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A review of three components of a death concept. *Child Development*, 55(5), 1671-1686.
- Speece, M. W., & Brent, S. B. (1992). The acquisition of a mature understanding of three components of the concept of death. *Death Studies*, 16(3), 211-229.
- Speece, M. W., & Brent, S. B. (199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In C. A. Corr & D. M. Cor (Eds). *Handbook of childhood death and bereavement* (pp. 29-50).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ss, H., & Towry, B. J. (1980). Children's death concepts and ethnicity. *Death Education*, 4(1), 83-8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Sungeun Yang

Professor, Dept. of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Sang Lim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Research on children's death concepts requires an approach considering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 qualitative method is necessary to explore children's cognitive process of understanding death. Thus, this stud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approach based on the deductive logic led by adult researchers, adopt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ethods: The data collection, referring to the theories of Corr and Balk (2010) and Smilansky (1987), used Death Concept Questionnaire. Each structured question was followed by open follow-up questions to explore how children understood each concept of death.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 children were still lacking in the acquisition of death sub-concepts. The qualitative result from open interview showed how children can and can not acquire the concepts of death.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could be used in future development of death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children's death education, which would help them coping with death related anxiety and loss experiences.

Received October 29, 2018

Revision received November 26, 2018

Accepted December 10, 2018